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 의 년 월 일 : 2014년 02월 04일(화) 14:00
2. 회의소집통보일 : 2014년 01월 29일(수)
3. 회 의 장 소 : 기획홍보처장실
4. 회 의 안 건 : 1)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의 건
2) 기타의 건
5. 위 원 정 족 수 : 9명
6. 참 석 위 원 : 이성호, 소현정, 김종천, 임성준, 조원삼, 김민정
7. 불 참 위 원 : 안태관, 장용원, 장인선
8. 회 의 내 용

위원장이 출석을 점명하니, 출석위원 7명으로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회의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안건을 상정하다.

위 원 장 : 금일 회의는 기 통보해 드린바와 같이 2014학년도 등록금을 심의를 확정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포한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안건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의 주요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지침을 보면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 이므로 등록금 인상률은 이의 1.5배인 3.75%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교는 2012년 등록금을 인하하고, 201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 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등록금을 인상하여야 하지만 사회적인 흐름이 인하하는 추세여서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4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준비한 안건은 2가지로 1안은 2013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안이며, 2안은 1:1수업이 많은 공연·음악 학과의 신입생에 대한 인상과 재학생에 대한 인하 방안입니다.

소현정위원 : 2012년부터 대학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된 것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의 경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행정감사 및 행·제정적 제재가 가해진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천위원 : 소현정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교의 경우는 양주캠퍼스 설립 등 등록금 인상요인은 가지고 있으나, 여론 등 제반여건 상 등록금을 인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 안건을 보시면 1안은 2013학년도 등록금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학년별 모집정원에 변화가 있어 0.11% 인하가 되었습니다. 2안은 전년도 등록금을 1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연·음악계열의 1:1수업에 대한 강의료가 높아 신입생을 높이고 재학생을 낮추는 방안으로 책정을 해보았으며, 0.18%가 인하 되었습니다.

임성준위원 : 재학생에 대한 동결은 좋은 방안이지만 4학년 공연·음악계열의 등록금을 낮춘다면 4학년 모든 학과를 낮추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낮추는 비율을 동일하게 하면서 모든 학과에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지 제시 드립니다.

위원장 : 임성준위원님의 말씀처럼 4학년 모든 학과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된다면 신입생 모든 학과에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며, 인상에 폭이 넓기 때문에 인상율이 높아진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소현정위원 :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공연·음악계열의 신입생만 등록금을 올린 이유는 1:1수업이 많은 공연·음악계열의 학생들이 동일계열의 학생들과 비슷하게 등록금을 납부하기엔 무리가 따르며, 1:1수업으로 인한 강의료 비율이 너무 높아 학과 운영 및 학과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단점도 발생합니다.

김민정위원 : 양주캠퍼스 이전학과와 임실 본교에 있는 학과들의 등록금 책정안은 따로 없는 것인지 또한, 임실 본교에 소속된 학과의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인하 적용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 김민정위원님의 말씀처럼 양주캠퍼스와 임실 본교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차별화도 고려해 보았지만 지역적 차별에 따라 등록금 부담을 달리 한다면 학생들에게 2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등록금은 차별을 두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현정위원 :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캠퍼스의 지역 차별에 따라 등록금을 따로 책정하고자 하였으나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달리 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짓고 등록금은 동일하되 장학의 폭을 차별화 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조원삼위원 :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 인하가 없이 동결로 되어 있는데 3개의 대학원마다 등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맞추는 것은 어떠 할 지 제시 드립니다.

김종천위원 : 대학원의 경우 문화예술대학원은 예체능 대학원으로 실기 및 실습공간이 필요하면서 음악계열의 시간강의로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등록금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대학원, 문화영상창업대학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로 예체능에 비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원삼위원님의 말씀처럼 인문사회계열의 2개 대학원은 등록금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 함에는 무리가 없겠지만 바로 시행은 불가능 합니다. 등록금 인상·인하율에 많은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점은 시간을 두고 좁혀 나가는 방안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 원 장 : 김종천위원님의 말씀처럼 시간을 두고 대학원의 등록금은 계열에 맞게 조정하고 2014년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로 확정함에 동의하십니까?

전 위 원 :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2014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은 위원님들의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2안' 입학금 전년 대비 동결, 학부 등록금 0.18% 인하, 대학원 등록금 동결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등록금 심의 확정안을 본교 대학 평의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전원 : 없다고 함.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시니 2014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등록금은 2013학년도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 결의사항

안 건 :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의 건

결의사항 : 2014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의 등록금은 2안으로 의결함.

별 첨 : 2014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2014년 02월 04일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성 호 (인)
위 원 손 미라 (인)
위 원 최 흥찬 (인)
위 원 임성준 (인)
위 원 조 귀상 (인)
위 원 김민정 (인)